

## 일본 농림성 수출촉진강화 예산요구

### ■ 2016년도 일본 농림수산성 개산예산 반영요구 발표

- 일본 농림수산성은 8.31자 2016년도 개산 예산 요구안을 발표하여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예산 및 조직 신설 등의 예산 반영을 요구
- 현재 개최중인 밀라노 박람회를 발판으로 삼아 2020년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한 대폭적인 수출확대 도모하는 정책안을 반영
- 일본 식문화 발신, 일본판 FSSC22000, GAP 등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안전규격을 보급하는 안도 포함됨

### ■ 수출확대 위한 글로벌 식시장 획득예산(전체 5,492백만엔 규모)

#### 【수출촉진그룹 부서 관련 예산 : 3,174백만엔】

#### ○ 수출전략 실행사업(152백만엔)

- 2014.6월에 조직된 수출전략실행위원회를 사령탑으로 품목별 수출확대방침 책정 및 실행 상황에 대한 검증 실시하여 올재팬 태세 수출확대 대응
- 수출 목표액 : 2014년 6,117억엔 → 7천억엔(2016년)
- 일본산 식품류의 제외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에 관여하는 외국정부기관 관계자 초청사업을 통해 일본산 농수산물식품의 안전성 현지확인등을 실시하여 이해를 도모

#### ○ 수출업체 지원 대책 사업(1,052백만엔)

- 수산물, 쌀, 화훼, 축산물, 녹차, 임산물 및 청과물등의 각 품목별 수출단체가 재팬브랜드 확립을 위해 국내검토회, 해외마켓조사, 해외판촉촉진,

#### 판로개척사업 등 지원비

- 산지간 연계등에 의한 수출진흥체제 구축
- 다양한 가공식품 산지나 관계사업자를 연계 통합하는 단체등이 연간 또는 장기적인 안정공급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검토회 개최, 해외마켓 조사, 전시회 출전비등 지원
- 농업자 또는 식품사업자의 해외 인증 취득, 갱신, 규격인증 취득비 지원
- 선진적 수송기술에 따른 최적 수출모델 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등

#### ○ 수출종합 지원 프로젝트(1,573백만엔)

-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제트로(JETRO)를 통해 조직적이고 일관적인 비즈니스 지원을 제공
- 신규시장(베트남, 인도네시아, 중동등) 개척을 위해 해외주재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모터를 설치하여 전문가 지원
- 수출세미나 개최 및 상담방법 향상 연수실시등
-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시식행사 등 테스트마케팅 실시
- 해외 전시회 출전 및 국내외 상담회 개최
- 해외 일본계 식품관련기업과 협조하여 해외연락협의회를 개최 지원

#### ○ 식품산업 글로벌 전개 인프라 정비사업(104백만엔)

- 현지법인이 직면하는 2국간의 다양한 제과제 해결을 위한 현지 정부와의 대응 등 글로벌 전개 장애 요인 해결 지원 사업
- 현지 기업들이 직면하는 환경대책, 모조품 대책, 경영지도등 글로벌 전개에 필요한 일관된 인재 확보사업

#### ○ 수출환경 정비추진사업(293백만엔)

- 원전사고로 인한 수출국 규제완화, 철폐등을 위한 정부간 교섭에 필요한 과학적 자료수집 및 기존첨가물 등록신청등 수출환경과제에 대응하는 민간단체등 지원비

### ■ 일본 식문화 발신 강화

- 일본의 농림수산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일본식문화 발신과 식문화를 구체적으로 제공 가능한 조리사, 물류 및 상류기능 등의 사회적 기

반정비 등 과제도 많은 한편 수출촉진을 통해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다.

- 농림수산성은 9월 상순에 「일본식 및 일본식문화 보급검토위원회」와 「식과 농의 경승지 검토위원회」를 설치하고, 보급검토위원회에서는 일본식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해외 음식점등을 지원하는 식문화 서포트제도의 도입과 일식 조리사 기능인정제도 창설등을 검토할 예정이다.
- 경승지 검토위원회는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통해 농어촌의 활성화 및 6차산업 시장규모 확대로 연결해 나갈 예정이다. 두 개의 검토위원회의 협의된 결과는 2016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.
- 안전하고 고품질인 일본의 농림수산식품이긴 하나 세계적으로는 그다지 인정되고 있지 않다. 국제적인 거래방법에도 통용 되고 일본식문화에도 통용되기 쉬운 일본발 식품안전관리규격 및 인증방법을 추진하며, 일본의 농가에도 쉽게 적응 가능한 일본발 수출용 GAP의 국제적인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대응책을 지원할 계획이다. 또한, 2016년도의 조직개정 요구중 소비안전국에 국제기준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. 제외국의 수입제도 및 국제기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(자료출처 :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 수출촉진그룹/ 일본식량신문 2015.9.2일자)